NAKS
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
재미한국학교협의회
www.naks.org

문서번호: NAKS-15BOD-35-20240510
발 신: 이사장 박종권
수 신: 김선미
참 조: NAKS 이사회
제 목: 제명 통지
발 송: 2024 년 5 월 10 일

제 명 통 지 서

2024 년 5 월 10 일

김 선 미 귀하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2024 년 5 월 9 일 제 66 차 이사회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심의 절차를 갖고 '제명'을 의결하였습니다. 이에 귀하께 통지합니다.

심사 과정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는 2024 년 3 월 21 일에 개최된 제 65 차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 및 선출직 이사, 전직 이사 등으로부터 상정된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 요청을 토의한 결과, 협의회 수호 및 낙스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귀하에 대한 징계심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,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(위원장 김미경 외 8 인)를 구성함.

특별조사위원회는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2024 년 4 월 27 일과 5 월 5 일 회의를 갖고 귀하의 총회장 축출 주도, 임원 협박행위, 협의회 업무방해, 낙스 신뢰도 및 명예 실추 등 징계 항목을 이사회에 상정함.

징계 결정

2024 년 5 월 9 일 제 66 차 이사회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정안을 심의하고 제명을 의결함.

징계 사유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임기를 마친 총회장에게 '직전총회장'이란 타이틀과 함께 당연직 이사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후임 총회장이 안정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성원하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김선미 씨는 협의회 취지에는 상반되게 집행부 출범초기부터 '직전총회장'이란 영향력으로 현 총회장의 운영방식 및 집행부의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사들-특히

자신이 총회장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협의회장들을 선동하여 총회장 이사장 축출을 주도하며 현재의 분규사태를 유발했습니다.

아울러 김선미 씨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집행부 임원에게 총회장의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나아가 임원 개인을 협박하는 이메일을 보내 심각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.

또한 김선미 씨는 총회장의 승인도 없이 협의회 유관단체들을 접촉하며 집행부 사업에 대해 마치 자신이 영향력 있는 인물인양 행세하며 현 협의회 집행부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.

[별첨]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내용

이사장 박종권